고은 불교 대하소설

〈41〉

지옥의 날들

지옥은 염마의 세계를 주재하는 염라대왕의 부하들이 마구잡이 강제로 송치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중음(中陰)의 영식(靈識)이 이승의 49일을 다 지난 뒤 그 영식이 가고싶은 곳으로 가면 죄업이 무거운 중생은 지옥중생의 고통스러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가는 곳일 뿐이다.

결코 염라대왕의 부하들이 으르렁대며 쇠채찍을 갈겨대거나 욕을 퍼부어대거나 하는 것도 아닌 내생의 문을 스스로의 뜻이 선택할 따름이다. 그 선택이야말로 그동안 지어놓은 행적의 에누리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여섯개의 문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도 있다. 그저 소박한 채색을 한 문도 있다. 작은 문과 큰 문도 있다.

바로 이런 문들이야말로 생전의 중생이 짊어온 카르마(業)의 결과를 조금도 가감하거나 첨삭하거나 하지 않은 채 그 문을 사용하는 의지를 막을 필요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 문 자체가 없는 상태처럼 문의 공간만 만들어져 있다. 여섯개의 문이란 바로 육도중생(六途衆生)의 하나로 태어나는 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7일동안 7명의 재판관이 있었거니와 여기에 3명을 더한 10명의 재판관 중에서 아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재판관이 3명이나 있다. 이들은 한번 더 그동안의 재판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한 재판을 하게 된다.

"이 문을 지나감은 장차 이문을 때려 부수기 위함이요, 이문 이후의 세상을 불태워…"
남각은 동행인 강도 살인죄의 대머리 후신과 지옥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였다

유족의 추선공양(追善供養:망자를 위한 유족의 선업)이나 중음의 마지막 기회에 기적에 가까운 정신적 변화에 의해서 생전의 악업을 어느 정도 탕감할 수 있을 경우 바로 그런 처지의 중생을 재심하는 것이다.

100일째 되는 날에는 광등왕, 1주년이 되는 때에는 도시왕, 3주년이 되는 때에는 오도전륜왕이 그런 재심을 맡는다. 지옥과 아귀계로 가게 된 중생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재심의 재판관 역시 근원적으로 고통과 난관을 구제하는 보살행의 주인공들이다. 광등왕으로 화신한 것은 관세음보살이고 도시왕의 모습으로 된 것은 대세지보살이다. 그리고 오도전륜왕은 바로 서방정토의 주세불(主世佛)인 아미타불의 화신인 것이다.

바로 이런 보살과 여래들로 구성된 저 세상에의 탄생을 결정하는 심판의 본질은 지옥 아귀 수라 축생계의 고통이나 인간계의 상대적인 고통조차도 자비의 세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섯개의 문기둥 주련(柱聯)에는 다음과 같은 시 한 구절들이 눈에 띄도록 씌여있다.

'어찌 날 저물어 행하는 바와 받는 바가 물이겠느냐. 바른 길 앞에 불빛이 하나 둘 밝혀지누나.'

'그대 이 문이 처음이 아니라 이 문턱 닳도록 드나든 단골손님 이어라.'

'그대가 그대라는 이를 뿐일진대 그대가 받는 고통 또한 이를 뿐이니라.'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나 지옥의 억만겁이 한 티끌의 찰나임을 어이 모르랴.'

'부처와 보살이 울고 계신데 어찌 중생의 고통이 그대로이랴.'

'고통이 열반의 꽃이니라. 그대는 그 꽃밭으로 주저하지 말고 갈지어다.'

'이 문기둥 뒤에는 어머니가 계시니 그대가 다시 어린 아기가 되리라.'

이런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시인 나위가 아니었다. 그의 생전은 거의 문자와의 인연이 없었다.

남각만이 아니라 남각과 동행한 어떤 중생도 순무식장이였다. 그런데 그가 이 문기둥의 한 시를 보는 것만으로 그것을 해득(解得)하는 놀라움을 보였다. 그 놀라움에 또 하나의 놀라움을 더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 무식장이의 입에서도 한 구절의 시가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이었다.

"이 문을 지나감은 장차 이 문을 때려부수기 위함이요. 이 문 이후의 세상을 활활 불태워 잿더미 날리려함이 아닐진대 어찌 내가 이 문을 지나가리오."

남각은 그 동행인 몇번의 강도살인죄의 대머리 후신(後身)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였다. "이 문을 지나감은 장차…"를 새김질하면서.

그런데 여섯개의 문을 통과한 중생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서로 다른 길을 감으로써 각자의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옥은 결코 영원한 지옥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벗어나서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는 전생(轉生)을 반복한다.

아니 천상계의 천인(天人)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락이 다한 뒤 다른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감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여섯 세계 자체가 누구나 드나드는 윤회의 한 숙지(宿地)인 것이다.

남각 일행은 그런 윤회로서의 지옥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이 가는 길임에 틀림없으나 또한 그들 자신이 가야할 길을 누군가가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 누구란 그들 자신의 업보(業報)이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하루동안 가는 거리가 1유순이라면 2리반(半)쯤에 해당한다.

이런 길이의 단위로 몇만유순을 지나는 나그네가 되어 삼악도(三惡道)의 가장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삼악도는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이지만 이 삼악도의 고통조차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계 인간계와 함께 임시적이다. 또한 아수라계는 삼악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분류한다. 불이와 함두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일종의 독자적인 고통의 세계이다.

하지만 이런 중생계의 각 세계가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가령 천상계의 수명이 4천세인 것과 달리 지옥에서의 죄업이 깊은 중생은 몇번이나 죽고 태어나기를 거듭하며 받는 지옥의 고통을 1억조년이나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옥에서는 안락사(安樂死)란 단 한번도 허용되지 않는다. 죽음까지도 가장 혹독한 형벌의 고통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지옥은 대체로 8개로 나누어지는 단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현세의 지옥, 그러니까 지옥계의 하나인 고지옥(孤地獄)이 있을 수 있는 사바세계의 지옥과 지옥계의 그것은 다르다. 사바세계의 방 감옥이야 기껏해서 다섯길 정도의 지하감옥이지만 지옥계의 그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지하 1만2천5백리나 깊은 곳에 첫번째 지옥인 등활지옥(等活地獄)이 있다. 그 아래로 흑승(黑繩)지옥, 중합(衆合)지옥, 규환(叫喚)지옥, 대규환지옥, 초열(焦熱)지옥, 대초열지옥, 아비(阿鼻)지옥이 이어진다.

이 지옥들은 8열(八熱)지옥 혹은 8대열지옥이라고 통칭하는데 이에 대칭되는 8한(八寒)지옥은 이를테면 남극이나 북극의 혹한으로 된 지옥이지만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마도 이런 사실은 지옥계에 대한 상상이 폭염의 인도에서 발생함으로써 인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남각은 그의 동행자와 함께 점점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은 뜨거움으로 채워지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옥으로의 이 선택은 그가 바라던 것이었으므로 누구보다 그런 지옥에 가까워지는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이제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

"뜨거워! 뜨거워!"

이런 소리가 하나하나 발악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옥은 결코 영원한 지옥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벗어나서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는 전생(轉生)을 반복한다

단말마(斷末魔)란 말마(末魔:말마)가 잘려나간다는 뜻이겠다. 인간이나 동물의 육체에는 특수한 극소(極少)부위가 있다. 일종의 급소이다. 바로 그 부위가 말마인데 그 말마를 조금이라도 다치면 바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급소이기보다 죽음의 구멍[死穴] 또는 죽음의 마디[死節]이라 한다.

"앗 뜨거워!"

하고 외치면서 단말마의 비명을 질러대며 길에 쓰러져 나뒹구는 자도 하나둘 생겨나는 것이었다.

그런 때 남각이 그 단말마의 비명으로 나뒹구는 자를 그 자신의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워 좀더 참아야 한다고 독려하는 것이었다.

남각에게는 그의 본성(本性) 그대로 어떤 것도 혼자 가지지 않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성정(性情)이 있다. 그는 생전에는 어느 섬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구한 보물도 동료인 뱃사공들과 고르게 나누었다.

심지어 사바세계 조선 황해도 연평도에 파시(波市) 때의 미모의 작부조차도 그 미모의 여체를 독점하거나 소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작부를 주인 없는 존재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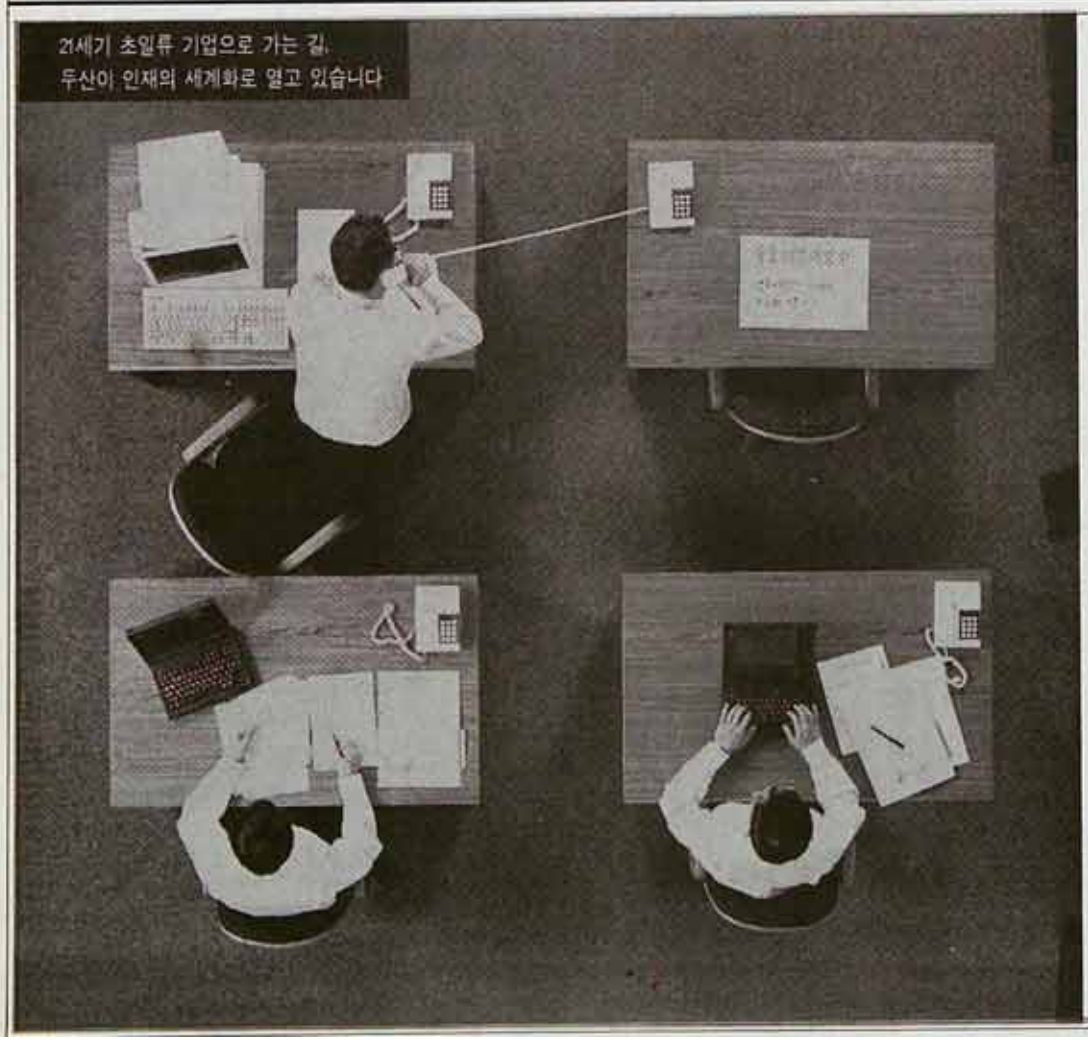
'혼자 독점하는 일이야말로 그 아름다운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제법 바다 위를 떠도는 동안 터득한 어떤 철학적이기까지 한 관단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신념에 이어져서 동행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아무리 뜨겁더라도 이 뜨거움에도 익숙해질 터이지…. 자네도 나도 이런 뜨거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힘을 내세."

"그러는 자네는 왜 이런 지옥의 길을 택했단 말인가? 뜨거워!"

그림 · 조향숙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갈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100년, 도전100년
斗山